

해남 산·숲길 따라 봄기운 충전

군, 비대면 걷기 '숲길 이야기'
내달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1000명 모집...인증 이벤트도

코로나19 여파로 혼자 산행을 하는 '혼산족'과 초보 등산객 '산린이' (산+어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등산·트레킹 등 비대면 야외운동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개별여행·걷기여행 트렌드에 맞춰 해남군이 비대면 걷기 행사를 마련했다.

해남군은 다음달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남 산과 숲길 이야기'를 주제로 비대면 걷기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 수요를 반영해 해남의 대표 산과 숲길을 비대면 개별여행으로 걷는 행사다.

'달마고도 워킹데이'는 지난 2017년 11월 개통 이후 18만여명의 국내 워킹족이 다녀간 것은 물론 재방문율도 높아 도보여행의 명소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달마고도는 17.74km에 이르는 달마산 둘레길이다. 땅끝 사람들이 장에 가기 위해 넘어던 옛길이자, 달마산 12개 암자를 잇는 수행의 길을 새로 단장했다.

본래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계를 쓰지 않고 돌 하나하나를 지게로 날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공룡의 등뼈같은 바위암릉이 끝도없이 이어지고, 앞으로는 다도해의 전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땅끝의 아름다운 생태가 그대로 살아있고, 미황사를 비롯한 달마산 곳곳에 숨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세계적인 순례길인 산티아고에 비견되고 있다.

해남군은 카카오톡채널(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을 통해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며, 참가자에게는 행사참여 인증용품을 미리 발송한다.



해남군은 다음달 13일부터 '해남 산과 숲길 이야기'를 주제로 비대면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달마고도 워킹데이. <해남군 제공>

행사 기간 14개소 인증지점 중 한 군데 이상 방문하고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지점은 달마산 8개소(달마고도 스탬프함 6개소, 달마봉, 도솔암), 두류산 3개소(가련봉, 두

류봉, 노송봉), 갈두산 2개소(땅끝전망대, 땅끝탑), 흑석산 1개소(깃대봉) 등이다.

해남군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행사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세계가 반했다 퍼플섬 반월도



신안 안좌면 반월도 어린왕자와 퍼플교. <신안군 제공>

독일·홍콩 이어 美 CNN·폭스뉴스 '신안 퍼플섬' 소개

세계 최대 언론사 CNN과 폭스뉴스도 신안 반월도 '퍼플섬'을 대대적으로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8일 CNN은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이라고 반월도를 소개하면서 8장의 사진과 함께 퍼플섬의 여행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섬 연혁과 보랏빛 섬으로 탈바꿈한 과정을 설명했으며 섬의 재단장에 대해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시도'라고 규정하고 최근 관광객 증가를 볼 때 그 시도가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CNN에 이어 폭스뉴스도 19일(현지시각) 퍼플섬의 독창성을 조명했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반월도는 퍼플섬으로 만든 후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핫토픽란에 올렸다.

퍼플섬이 코로나19로 국제여행이 제한되면서 수천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일일 여행지로 인스타그램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5년부터

보라색의 천국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퍼플섬은 지난해 독일 최대 위성TV 방송 프로시벤(Prosieben)과 홍콩의 유명 여행 잡지(U magazine)에도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신안군은 2007년 퍼플섬부터 보라색을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퍼플섬을 조성했다. 섬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꿀풀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보라색 섬으로 콘셉트를 정했다. 목교와 해안 산책로의 라벤더·지목련·수국, 마을 지붕, 작은 창고의 벽, 앞치마와 식기 및 커피잔까지 보라색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최초 섬 자체 컬러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퍼플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1~2022년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개 경주 보고 공연도 보고

군, 테마파크 3월 개장...장애물 넘기 등 진행

진도군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와 함께 하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도개 어질리티(장애물 넘기)와 공연, 경주(사진) 등은 매주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도군 소속 훈련사의 진도개 복종 훈련 시범과 개인기 공연이 실시된다.

주말인 토·일요일에는 진도개 주말 공연단이 오후 1시 어질리티와 공연, 경주를 진행한다. 다음달 1일 오후 첫 공연에서는 진도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특별공연이 선보인다.

진도개테마파크에서는 진돗개 썰매장과 진도개 홍보관, 진도개 방사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누구나 진도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진도군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발열체크, 거리두기, 명부 작성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활동 제공으로 진도군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 작은영화관 개관... 30년 만에 부활

군, 내달 4일 2개관 109석 규모

영광군은 다음달 4일 '영광작은영화관' 개관식과 함께 영화관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작은영화관은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연면적 494㎡ 규모의 1층 건물로 지어졌다.

영화관은 1관 49석(2D)과 2관 60석(3D) 등 2개관 109석 규모이며 매표소, 매점, 휴게공간을 갖췄다.

영광작은영화관은 장흥 정남진시네마(2015년)를 시작으로 고흥, 진도, 완도, 곡성, 화순, 보성에 이어 전남 8호점이다.

지난 1990년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영광지역 영화관들의 맥을 30여년 만에 다시 잇는 소규모 극장이다.

영광군은 작은영화관이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접 운영한다.

개관 기념으로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영광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영화 '미나리'와 '고백' 2편의 무료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무료시사회 초대권은 읍·면별로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배부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침에 따라 상영 회차와 관람인원은 조정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